

이병욱 · 김성남 열린우리당 탈당

한탄강댐 건설 반발 상무위원 집단행동



정부의 한탄강댐 건설에 반발해 열린우리당 소속 이병욱 시의원과 김성남 시의원 2명과 포천·연천 상무위원 등 8명이 12월27일 집단 탈당했다.

이들은 탈당 기자회견에 앞서 배후한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은

허수아비로 만들고 국무총리를 기만하면서 추진해 온 한탄강댐은 현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탄강지역 포천·연천지역 열린우리당 시의원과 당원들은 무너져가는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당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도덕불감증을 부추기는 한탄강댐 사업은 지난 7년 동안 여당은 열린우리당원들을 슬프고 부끄럽게 했다"면서 "현 정권이 한탄강댐을 묵숨결고 추진하는 이유를 우리는 의혹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여당이 붕괴위기에 있고 정권은 퇴임 후만 고민하는 불행한 시국을 가져오기 한 것

은 바로 한탄강댐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이라며 "원칙과 상식을 내세우던 모든 언행이 속임수였다는 것을 철원·연천·포천 주민들은 알게 되었고 지난 대선에서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의 지지를 보냈던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제 그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본 의원들과 함께 하는 모든 당원들 그리고 철원·연천·포천 주민은 한탄강댐이 백지화되는 그날까지 싸워나갈 것이며 강행시에는 소위 개혁세력을 대선에서 심판 할 것"이라며 "거짓된 한탄강댐을 추진하는 개혁세력은 더 이상 개혁세력이라는 수식이 의미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탄강댐 계획이 수차례

변경되고 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입찰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되는 등 부당성이 입증되고 원점재검토 하도록 했으나 총리실 산하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편법적인 검증단을 구성해 규모를 축소, 댐건설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다시 원안대로 발표하고 지난 20일 한탄강댐 건설 예산이 국회 통과하기 이전에 댐 건설을 고시하는 등 국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이들은 28일 오후 철원 고석정에서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연천·포천 공동투쟁위원회 주최로 1만여명이 참여하는 "한탄강댐 저지를 위한 투쟁 켈기대회"를 가졌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생활폐기물 소각장 민간투자로 추진

투자비 운영비 등 42차례 난항협상 끝에

포천시가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업체와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지난 22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박운국 시장과 (가칭)포천그린센터(주) 김양수 대표이사, 관계

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실시협약 체결은 최근 포천시 민간투자사업 지방심의위원회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의결하고 사업시행자로 포천

그린센터를 지정해 이루어지게 됐다.

포천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 온 자원회수 시설은 포천그린센터가 2005년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1년간 42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한 끝에 이루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경기도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받은 후 4월에 공사를 착공 2009년3월까지 공사와 종합시운전을 가동하고 15년간 포천그린이 운영권을 갖는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일일 80톤(40톤/일X2기) 처리시설과 폐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과 실내수영장, 사우나, 족구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게 된다.

시 관계자는 "2003년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이 일시 정지된 이후 포천시 쓰레기 처리문제는 한마디로 진퇴양난이었다"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포천시는 초기 투자비용없이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포천그린 투자비와 운영비 등을 협상하는데 무려 42차례에 걸쳐 진행해 왔는데 점은 그만큼 협상 난항을 겪어 온 점을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시가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업체와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지난 22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박운국 시장과 (가칭)포천그린센터(주) 김양수 대표이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실시협약 체결은 최근 포천시 민간투자사업 지방심의위원회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의결하고 사업시행자로 포천그린센터 지정해 이루어지게 됐다.

포천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해 온 자원회수 시설은 포천그린센터가 2005년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1년간 42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한 끝에 이루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경기도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받은 후 4월에 공사를 착공 2009년3월까지 공사와 종합시운전을 가동하고 15년간 포천그린이 운영권을 갖는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일일 80톤(40톤/일X2기) 처리시설과 폐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과 실내수영장, 사우나, 족구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게 된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추천! 이야기 한마당

사랑의 묘약



이보용 본지사운영위원

이 약은 신약도 아닙니다. 이 약은 한약도 아닙니다. 이 약을 만드느라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도 아닙니다. 이 약은 먹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약은 바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슬그머니 다가가서 팔만 벌리면 됩니다. 그리고는 살짝 안아만 주면 됩니다.

이 약은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약은 맘껏 수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약은 아무리 주어도 밀천이 안됩니다. 이 약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도 않습니다.

이 약은 가장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가장 많은 약효가 나타납니다. 이 약은 스트레스를 풀주고 행복감을 키워줍니다. 이 약은 특히 가슴에 난 상처에 특효약입니다. 이 약은 전혀 부작용이 없으며 오히려 혈액순환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약입니다. 처방은 이것입니다. 최소한 하루에 한번씩 안아주는 것입니다. (문의 011-342-5834)



김윤배 대진대 산학협력개발원장

“중소기업 인력난 구직난 동시 해소”

교육참가비 무료 이론과 현장실습 교육 호응 높아



대진대 산학협력개발원은 구직자를 위한 양성교육 7개 프로그램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향상교육 27개 과정 및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 맞춤형 교육과정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대진대학교 산학협력개발원이 운영하고 구직자 신규 과정 및 재직자 향상교육 프로그램은 노동부 주관으로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사업이며, 국내 사립대학중에서 대진대가 2006년 전국 최초로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중소기업 신규인력 양성교육에 참여하는 구직자들에게는 이론과 현장실습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교육수당으로 매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또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교육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전문성교육을 실시하며 기업체 요청이 있을 경우 직접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신규인력 양성과정은 1개월 120시간 이상이며, 향상교육 과정은 1일 이상 8시간 이상이다. 교육 참가비(교육비) 및 교재비 전액 고용보험기금 충당)는 무료다.

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구직자나 기업체는 대진대 홈페이지 혹은 전화 021-539-2900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대진대 산학협력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직업교육 컨소시엄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김윤배 원장에게 정중했다.

종합대학인 대진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다.

▶대진대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는 대학의 기능은 연구기능과 교육 및 봉사기능 등 3대 기능이다. 그동안 대학의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은 제 기능을 했지만 사회봉사기능은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대진대학교는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4년제 대학으로써 기능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직업교육 컨소시엄 운영은 전체 운영비 가운데 대진대학교가 현금 20%와 시설제공 등 30%를 투자하고 노동부에서 70%를 제공하고 있다.

대진대학교가 산학협력개발원을 운영하면서 30%의 비용을 분담한다는 것은 사회봉사 기능을 강화시키는 차원이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대진대학교는 2005년11월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신규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후 지난 1월 대진대 부속기관으로 산학협력개발원을 설립하고 4월 의정부 중소기업체 재직근로자 대상 첫 교육 실시, 8월 세미나실 등 전용 강의실 인테리어 공사 완료, 9월 텍스트일 생산관리자 1기 양성과정, 10월 뷰티디자인 메이크업 1기 양성과정 등을 교육하고 있다.

재직근로자 향상교육과정은 현재까지 41개 과정 195개 기업체에서 연인원 2천239명의 교육생을 배출했으며, 114명을 대상으로 3개 기업체 맞춤형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구직자 양성교육 과정은 현재까지 2개 과정 43명(연인원 689명)이 교육을 마쳤으며 4개 과정 107명(연인원 1천42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강사 선정은 교수 혹은 IT기업 대표나 실장, 전국에서 유명한 회계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공개모집한다. 강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후 피교육생들이 강사 평가를 한다. 강사 평가에서 90%의 호응도가 없으면 다음 임용을 배제시켜 강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교수들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달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피교육생들은 피해의식이 있는 것으로 느낀다. 그래서 향상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조금스럽게 접근한다. 교수들과 강사들에게 피교육생들에게 호칭과 말, 눈빛 등을 상형식으로 대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강사들에게 열정적으로 강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

▶교육과정에서 보람이 있다면

교육을 이수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느낀점과 장단점 등을 기술하도록 한다. 모 기업체 직원들이 세무회계 교육을 받은 후 회사경비가 크게 감소했다. 이런 효과가 나타나 기업주와 전문가 직접 찾아와 상담을 실시한 후 과정급 이상 직원 전원이 리더십 교육에 참여했다.

또 양주시 소재 모 금속회사는 기업주가 직접 교육을 이수한 후 사무직 전체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교육을 받은 기업주들은 맞춤형 교육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핵심인력 육성, 최신 정보를 습득한다는 평가를 받을 때 큰 보람을 느낀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중소기업 직업교육 컨소시엄 운영 취지는

경제난으로 인해 구직자들은 직장을 찾기 못하고 중소기업체들은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구직난과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근본 취지다.

구직자 대상으로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능력향상 교육을 실시해 생산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북부와 서울 지역 중소기업들의 직업교육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있다. 특히 섬유와 피혁, 기구산업, 디자인 분야 등을 특화시켜 생산성 향상은 물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같은 지역경제 허브역할을 경기북부지역 유일한 4년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객님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신촌 오리천국



하승우에서 “전주식백반”을 운영하다 고객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신촌오리천국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들의 지속적인 사랑 부탁드리며 더욱더 고객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신촌오리천국이 되겠습니다.

대표 : 김형준

◆메뉴◆		◆점심특선◆	
오리로소	30,000원	오리불고기정식	6,000원
오리훈제구이	35,000원	오리탕	5,000원
오리훈제찜	35,000원	가미술밥	1,500원
오리모듬구이	35,000원		
오리반마리	20,000원		

최고의 맛·양·친절

예약 · 문의전화
☎ 031) 544-3911

